

‘제2의 정현 꿈꾼다’...광주오픈챌린저테니스 개막

미래 테니스계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2018광주오픈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 대회가 오는 11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개막된다. 19일까지 9일간 열리는 광주오픈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는 지난 2016년 창설돼 올해 3번째 행사이며 국내에 4개밖에 없는(서울, 부산, 김천, 광주) ATP챌린저투어다.

총상금 5만 달러 규모의 이번 대회에서 단식 우승자에게는 80점의 랭킹 포인트와 7,200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복식 1위는 3,1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전세계 32개국에서 1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며 국내에서도 3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랭킹포인트를 노린다.

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22·한국체대·세계랭킹 23위) 역시 챌린저 대회 활약을 바탕으로 현재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선수로까지 성장했다. 세계랭킹 100~300위 사이 유명 선수들이 그랜드슬램 진입 및 투어 100위내 진입을 위해 챌린저투어를 뛴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세계랭킹이 높은 선수는 람쿠마르 라마나탄(인도·111위)과 이토 타츠마(일본·182위)다.

11~19일 9일간 진월국제테니스장서 130명 열전
인도 라마나탄·일본 타츠마 외국선수 100명 참여
이덕희·정운성·정홍·신동학 등 국내선수 ‘주목’

이토 타츠마는 지난해에도 참가해 2년 연속 광주를 찾게 됐다.

국내 선수중에서는 이덕희(20·서울시청)와 정운성(20·CJ후원)이 있다. 이들의 세계랭킹은 현재 각각 240위와 338위지만 최근 경기력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주목할만 하다.

이덕희는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테니스 국가대표다. 광주대회를 뒀던 뒤 자카르타로 이동, 메달에 도전한다.

정운성은 최근 미국 렉싱턴에서 열린 캔터키뱅크 챌린저에서 4강에 진출했다. 프로 데뷔 이후 최고 성적이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대표에서 탈락했지만 오히려 경기력은 상승세기에 이번 대회에서의 활약 역시 기대되고 있다.

본선 와일드카드 단식경기에는 신동

학, 정홍, 김정의, 정영석이 출전하며, 복식에는 송민규-남지성, 정홍-노상우, 김성의-나정용 등이 나선다.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 출신인 신동학은 현재 상무 소속이며, 오는 10월 개막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광주 대표로 출전한다.

지난해 대회는 독일의 바히거가 단식 우승을, 복식에서는 티첸(대만)-벤 맥라클란(일본)조가 우승했다. 초대 대회에서는 리투아니아 리카르다스 베란키스가 단식에서, 태국의 산차이 라티와타나-손차트 라티와타나조가 복식 정상에 올랐다.

광주시테니스협회는 폭염속 대회라는 점을 고려해 관중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준결승과 결승이 열리는 18-19일에



이덕희



정운성



람쿠마르

는 대회 붐 조성을 위한 광주전남 동호인대회, 대학 동아리대회, 주니어 로컬 대회 등이 함께 열린다. 관중석에는 천막을 설치, 관중들이 그늘 아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ATP챌린저 대회 최초로 치어리더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료는 무료다.

18-19일 오전 11시 열리는 단·복식 준결승 및 결승경기는 SPOTV2를 통해 생중계된다.

광주시테니스협회 강철성 회장은 “예년보다 더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참가한다”며 “세계적인 선수들의 기량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이 기승인 점을 감안해 관중석에 천막을 치고 프로야구와 같은 흥겨운 분위기 유도를 위해 치어리더 공연도 준비했다”며 “9일간 열리는 대회 기간 동안 꼭 한번 진월테니스장을 찾아 멋진 경기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AG 대표팀 연습경기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kt빅토리움 연습체육관에서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대표팀과 부산 kt 소닉붐의 연습경기. 대표팀 김선형이 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2년 연속 100만 관중 달성 ‘떡구름’

성적 부진에...홈 54경기 67만2,872명 전년보다 13% 줄어

KIA 타이거즈의 2년 연속 100만 관중 달성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KBO가 지난 7일까지 구단별 관중을 집계한 결과 KIA는 홈 54경기에 67만2,872명의 관중이 입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7만6,103명보다 13% 줄어든 숫자다. 평균관중도 1만2,461명으로 지난해 1만4,372명보다 1,911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KIA는 총관중 102만4,830명(평균관중 1만4,234명)을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최초로 100만 관중을 기록했다.

KIA는 올해도 기세를 이어 2년 연속 100만 관중을 목표로 했지만 이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KIA는 100만 관중을 위해 경기당 평

균 1만3,889명 입장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8일 현재 남은 홈경기는 18경기로, 100만 관중 달성을 위해서는 총 32만7,128명, 경기당 평균 1만8,174명이 입장해야 한다. 2만500석이 만석인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인 것을 감안하면 매경기 매진에 가까운 인원이 입장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관중 감소는 부진한 성적 때문이다. 지난해 KIA는 11번째 우승을 하면서 2만500명 매진을 10차례나 했다. 하지만 올해는 ‘가을야구’가 가능한 마지 노선인 5위에서도 벗어난 7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관중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매진도 6차례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KIA의 올시즌 현재 총관중은 10개

구단중 5위에 해당하지만 관중이 줄어든 3개 구단(NC, 넥센, KIA)중 하나이기도 하다.

산술적으로 현재 추세대로 라면 KIA의 올시즌 홈관중은 89만7,170명이 예상된다.

한편, 2018 KBO 리그는 7월 잠실, 문학, 고척, 마산, 울산 등 5개 구장에 총 4만1,811명이 입장해 531경기 만에 누적 관중 601만2,048명을 기록, 2011년 이후 8년 연속 600만 관중을 돌파했다.

LG는 88만1,914명으로 10개 구단중 유일하게 80만 관중을 넘기며 최다 인원을 기록하고 있고, SK는 지난해 대비 23%가 늘어 가장 높은 관중 증가율을 나타냈다. /최진화 기자

김학범호 공격옵션 다변화 훈련 시작

이승우·황희찬 합류... ‘3-5-2 전술·3-4-3 전술 가다듬기’

해외파 공격진들이 속속 합류하며 ‘완전체’에 다가선 김학범호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인패를 향한 공격옵션 다변화 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 대표팀은 지난달 31일 파주NFC에서 소집훈련을 시작했다.

하지만 손흥민(토트넘), 황희조(감바 오사카), 이승우(엘라스 베로나), 황희찬(잘츠부르크) 해외파 공격수 4명이 소속팀 일정 때문에 합류하지 못해 16명만 모인 터라 김 감독은 공격전술보다는 수비 조직력 다지기에 집중해 왔다.

김 감독은 ‘공격적인 스리백 전술’을 플랜A로 내세웠고, 좌우 윙백-스리백-수비형 미드필더로 이뤄지는 수비라인의 ‘찰떡 호흡’ 맞추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공격 훈련은 수비진에서 볼을 끊어낸 뒤 빠른 역습으로 연결하는 작업에 집중했다. 해외파 공격수들이 합류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트라이커 자원은 국내 파나상호(광주)밖에 없어 본격적인 공격옵션 훈련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감독의 기본 전술은 ‘3-5-2 포메이션’이다. 김 감독은 포백 전술에 능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이승우가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팬들에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상대적으로 U-23 대표팀 자원에서 측면 수비지원이 부족해 스리백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김 감독은 공격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좌우 윙백의 공격 가담을 늘리는 ‘공격적 스리백’을 기본으로 삼고 담금질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황희조가 6일 훈련부터 합류하고 황희찬과 이승우도 8일 합류하면서 김학범호의 공격옵션 다변화는 더 탄력을 받게 됐다.

나상호를 중심으로 3-4-3 전술 위주

로 훈련한 대표팀은 황희조에 이어 이승우, 황희찬까지 공격진에 가세하게 돼 3-5-2 전술도 훈련에서 가다듬을 수 있다.

대표팀은 11일 출국해 12일부터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본격적인 현지 적응 훈련을 시작한다. 13일에는 김학범호 최고의 핵심 전력으로 손꼽히는 손흥민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해 김학범호는 마침내 20명 선수가 모두 모이는 완전체가 이뤄진다.

/연합뉴스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오늘 개막

13일까지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제37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가 9일부터 13일까지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다.

대한수영연맹이 주최하고, 광주시수영연맹 주관, 광주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로 진행되며 초·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4개 종목(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스위밍)에 선수

1,700여 명이 참가한다.

개회식은 9일 오후 3시30분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김지용 대한수영연맹 회장 개회사, 이용섭 광주시장 환영사, 선수대표 선서, 아티스틱스위밍 시범경기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 이어 오후 5시 상무지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는 대한수영연맹 대의원인 17개 시·도 수영연맹회장이 참석하는 대한수영연맹 임시대의원 총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대한수영연맹이 김지용 회장의 선출을 계기로 관리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임원을 구성해 대의원들로부터 선임하기 위한 행사다. 내년 광주세계수영대회에 대한 대한수영연맹의 지원의지 표명 차원에서 김 회장이 개회사를 서울에서 광주로 변경했다.

이용섭 시장은 대한수영연맹과 시·도수영연맹 지도부에 광주수영대회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대회 붐 조성, 경기관람티켓 판매 협조, 시·도 소재 기업의 광주수영대회 협찬 협조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